

팍팍한 세상에 ‘양념’ 팍팍... 재미를 느껴라



광주비엔날레 20주년

최운형·박세희 참여작가 선정

최운형(여·38)씨와 박세희(여·30)씨가 올해 20주년을 맞는 제10회 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 참여작가로 선정됐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11일 “2014 광주비엔날레 포트폴리오 공모”에서 최운형씨와 박세희씨가 선정됐다”며 “두 작가는 제10회 광주비엔날레 주제 ‘터전을 불태우라’에 부합하게 역동적이면서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모두 46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두 작가는 광주와 서울을 기반으로 사진, 영상, 회화 등 다양한 현대미술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최씨는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를 졸업하고 예일대 석사를 마쳤으며, 현재 홍익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서울과 광주, 뉴욕 등에서 전시회를 가졌으며, 단편영화 ‘데 D 액 tion’ 미술감독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박씨는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런던예술종합대에서 사진을 공부했다. 광주와 뉴욕에서 2차례 개인전을 가졌고,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등으로 활동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정신’ 탐색 14일 2차 토론회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정신’ 탐색을 위한 2차 원탁토론회가 열린다.

광주비엔날레재단(대표이사 이용우)과 (사)광주연구소(이사장 나간채)는 14일 오후 3시 광주비엔날레 제문헌 회의실에서 2차 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1월 열린 1차 원탁토론회에서는 ‘광주정신의 전 지구적 가치’라는 학술행사 주제 아래 ‘광주정신 지구화와 그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2차 토론회에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광주정신에 대한 성찰과 현재적 의의’에 대해 논의한다.

발제자로는 홍성담(화가), 김준태(시인·전 5·18기념재단 이사장), 윤만식(전 통영회·광주민예총 회장), 임진택(국악), 전용호(문학·광주전남소설가협회 회장), 박문옥(음악·오월음악 이사장)씨 등 6명이 참여한다.

3차는 내달 시민 사회계 대표들이 참여하며 좌담회 및 청중 종합 토론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문의 062-608-422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그들의 유쾌한 상상

문화판을 바꾸다

〈8〉양념쳐STUDIO

박연숙·박세희 씨

광산 ‘벽산마을 예술창고’로 시작

‘꿈다락’ ‘낯은 서랍 속’ 등 기획

공부 아닌 무언가에 불을 당기는

‘청춘점화’ 프로젝트

문화 통해 모두가 자유롭게 소통

◀‘양념쳐 스튜디오’의 박세희(사진 왼쪽), 박연숙씨가 자신들이 기획한 광주여성재단 ‘낯은 서랍 속 스케치’ 전시장에서 포즈를 취했다.
/최현배기자 choi@

음식을 맛깔스럽게 만들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양념이다. 팍팍한 세상에 재미있는 양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었다. 양념에 동적인 의미를 담은 ‘쳐’를 보태 이름을 지었다. 양념쳐 스튜디오. 2011년 만들어진 ‘양념쳐 스튜디오’(이하 양념쳐)는 정해진 인원 없이 프로젝트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면서 일을 도모한다.

창립후 모임을 이끌었던 박연숙(36)씨와 올해 새롭게 대표가 된 박세희(30)씨를 만났다.

양념쳐의 첫 사업은 창조마을 사업 일환으로 맡았던 광산구 마을 전시관 프로젝트였다. ‘박산마을 예술창고’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창고로 쓰던 공간을 리모델링, 전시관으로 만들어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한 프로그램이다.

이후 양념쳐는 영산강 문화관 전시관 등을 활용해 ‘꿈다락 프로젝트-뚝딱이네 오두막’을 진행했다.

목포대에서 조소를 전공한 연숙씨는 2006년 졸업 후 중흥동 공공 미술 프로젝트에 스텝으로 참여하며 기획 일을 시작했다. 작가들은 철저히 혼자 작업한다. 반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아이디어를 내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게 재미있었다. 사람들을 만나고 뛰어들며 프로젝트를 완성해 가는 것도 적성에 맞았다.

조선대서 서양화를 전공한 세희씨는 졸업 후 영국 런던예술종합대학에서 사진을 공부했다. 귀국 후에는 개인 작업과 강의, 프로젝트 참여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희씨의 꿈은 공공성 있는 아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두 사람의 인연은 깊다. 연숙씨가 중흥동 아트프로젝트 스텝으로 활동할 당시 대학생이었던 세희씨가 참여했었다.

올해는 광주여성재단의 광주 여성공간 스토리텔링 기획전 ‘낯은 서랍 속 스케치’(3월7일~9월30일)를 기획했다. 양념쳐는 사사로운 기억이 담긴 공간과 많은 사람들

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달라지거나 사라진 곳과 지금도 그대로 있는 곳 등으로 나눠 여성들의 공간을 재구성했다.

문학소녀들의 아지트 수피아홀, 무등산 전망대 카페, 말바우 시장, 송정리 오일장, 성빈여사 등 공모전 수상자들이 풀어낸 ‘이야기’들은 장유진 작가에 의해 설치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등 또 다른 옷을 입었다.

양념쳐가 올해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청춘점화’(靑春點火). 청춘들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에 ‘불을 당기는’ 기획이다. 프로젝트 장소는 광주시 동구 대의동 학원가, 대상은 그곳에서 매일 같이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고 있는 청춘들이다.

“학원가에 머물고 있는 젊은이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이요. 젊음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한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나의 삶에 대해 한번쯤 생각하고, 환기해 보는 것도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거리가 학원도 많지만 미술관도 있고, 커피숍도 많아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양념쳐와 인연을 맺은 이들 중에 바리스타도, 숲해설가도 있어서 재미있는 기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박연숙)

우선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이야기와 사연을 모으는 리서치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뮤지션 ‘바다 프로젝트’,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는 ‘무등지성’ 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중이다. 무엇보다 ‘단발로’ 끝나지 않고 청년들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념쳐의 로고를 보면 리사이클링 이미지 안에 뛰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열심히 뛰면서 세상을 순환시키는 좋은 일이 담긴 기획들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담은 이미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봄 노래’ 불려요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

14일 호신대 카페 티브라운

봄내음 가득한 노래를 함께 부르는 행복한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회장 황선옥)는 ‘봄의 노래’를 주제로 3월 행사를 진행한다. 14일 오후 7시30분 호신대학교 카페 티브라운 8층.

이날 함께 배우는 노래는 이애리시, 심순보 곡 ‘그대는 봄’, 김종해 시, 이안삼 곡 ‘그대 앞에 봄이 있다’다.

회원 박안수·박현씨의 무대도 마련되며 특별 연주로 테너 이용조, 박진영씨가 ‘황혼의 노래’와 ‘그대 창밖에서’를 부른다.

초청 성악가는 테너 강동명(사진)

씨로 ‘꽃구름 속에’, ‘내 맘의 강물’을 선사하며 서애숙씨가 김명인 곡 ‘봄날’을 시낭송으로 들려준다.

티켓 가격 1만원. 간단한 먹을거리와 차가 마련된다. 4월에는 보성 출신 작곡가 채동선의 음악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한다. 티켓 가격 1만원. http://cafe.daum.net/gjkr-song. 문의 010-2694-45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역작가·단체 창작활동 지원 ‘신형회’전

13~26일 시립미술관 금남로본관

광주미협은 13~26일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본관에서 구상미술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형회(회장 송연식)를 초대해 ‘신형회 제27회 정기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역량 있는 지역 미술단체와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광주미협이 매년 4개 단체 또는 작가를 선정해 지원하는 전시다.

신형회 회원 고영준·김미선·김상현·김성대·김정희·류근배·박세경·송연식·이광남·이사범·전준관·정흥기씨 등 12명은

모두 4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고영준씨는 탐스럽게 피어난 수국을 화폭에 담았고, 김성대씨는 남도의 서정이 짙게 묻어나는 ‘돌아가는 길’을 선보인다. 류근배씨는 시골 마을의 한적한 겨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박세경씨는 푸른 대나무에 내려앉은 이슬을 통해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한 작품을 전시한다.

한편 1986년 ‘호남구상작가회’라는 이름으로 창립한 신형회는 1988년 개명한 이후 현재까지 26회의 정기전과 7차례의 기획전전을 통해 지역민들과 소통해오고 있다. 문의 062-222-375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송연식 작 ‘구판장 뒷물’

광주 1등 맛집

5회 연속 1등맛집 선정

2006년(1기), 2008년(2기), 2010년(3기)
2012년(4기), 2014년(5기)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세미나, 가족모임, 비즈니스 미팅에는 역시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 1등맛집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맞춤형 출장 도시락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카페 보네르

금수장관광호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 - 2111 (계림동 아울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